



유통업계  
가을맞이  
대규모 할인  
L1



Life

K-제약·바이오  
예방·진단 중심  
정밀의료시장 공략  
L2



# “기술로 계획하고, 감정으로 기록… 사람 중심의 여행 설계”



새벽을 여는 사람들

## 트립비토즈 정지하 대표

여행을 ‘기술의 산업’이 아닌 ‘인간의 감성’으로 복원하려는 한 기업가의 철학이, 한국 스타트업의 다음 좌표를 말해준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 새벽 5시 반. 도시의 해가 뜨기도 전에 트립비토즈 사무실 한쪽 불이 켜진다. 정지하 대표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에 시작된다.

정지하 대표는 “이른 새벽은 생각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이라, 조용할수록 문제의 본질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트립비토즈는 2017년 설립된 여행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여행의 감성’을 중심으로 기술을 결합해 숙박·리워드·결제·커뮤니티를 아우르는 구조를 만들었다. 2024년부터는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iOL과 협력해 중동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정 대표는 “여행은 감성의 산업이지만 동시에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숙박과 결제, 커뮤니티의 흐름이 한 번만 끊겨도 전체 경험이 제로(0)가 되기 때문에 기술로 그 곱셈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립비토즈의 시간을 ‘뱃돌을 돌리는 과정’에 비유했다. “기업의 성장은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찰과 견딤의 결과”라며 “처음엔 마찰이 크지만 꾸준히 돌리면 관성이 붙는다. 트립비토즈는 그 관성을 만들어온 시간 속에 있다”고 전했다.

여행업계는 팬데믹 이후 급격히 무너졌다. 전 세계 OTA의 70% 이상이 시장에서 사라졌고 국내에서도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트립비토즈는 오히려 플랫폼을 재정비하며 체력을 길렀다.

정 대표는 “당시 대부분이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며 “여행의 본질은 이동이 아니라 관계라는 걸 확인한 시

기였다”고 말했다.

트립비토즈가 주목하는 건 기술보다 사람이다. 정 대표는 “AI 시대의 인재는 회복탄력성과 질문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놓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의 확산 속에서 “문제를 정의하지 못하면 기술은 방향을 잃는다”며 “트립비토즈는 기술이 아니라 질문을 키우는 회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AI가 여행을 바꾸는 시대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인간의 감정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AI가 개인의 여행 루트를 추천하는 시대지만 결국 그 여정을 기억하는 건 인간의 감정이다. 기술은 인간의 여정을 보조해야지 대신할 수는 없다.”

실제로 트립비토즈는 감성 기반 추천 시스템을 시범 적용 중이다. 데이터가 아닌 감정 키워드로 숙소와 경험을 연결한다.

정 대표는 “효율보다 경험, 정답보다 맥락을 이해하는 AI를 만들고 싶다”며 “기술이 감성을 따라올 때 여행은 비로소 인간의 영역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정지하 대표가 최근 대통령 대담에서 던진 ‘디지털 영토전쟁’이라는 개념은 업계의 화제를 모았다. 그는 “한국의 물리적 영토는 전 세계의 0.07%에 불과하지만 K-웹이브가 만든 디지털 영토는 1% 수준까지 확장됐다”며 “싸이월드, 리니지, 네이버에서 자란 세대가 문화와 경제를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AI 기술만으로는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틱톡의 사례를 보면 데이터와 문화가 결합된 플랫폼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한국은 기술은 빠르지만 세대 간 이해의 간극이 크다. 그 벽을 허물어야 진짜 디지털 강국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쌓인 콘텐츠가 약하다는 문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



2017년, 여행 플랫폼 스타트업 설립  
기술 결합해 숙박부터 커뮤니티까지  
팬데믹 여행업 위기에 플랫폼 재정비  
인간의 감정 중심… 여행 흐름 연결해

데이터-문화 결합, 디지털 영토 넓혀  
기술과 감정 잇는 순환구조 만들고파

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정 대표는 “AI 인프라의 핵심은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어떤 이야기를 쌓느냐에 있다”며 “트립비토즈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기록되는 플랫폼의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것이 디지털 영토를 넓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의 시선은 경제성장보다 세대 간 이해에 있다. “경제 성장보다 중요한 건 세대를 관통하는 이해의 방식”이라며 “공자의 말처럼 나이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대 간 소통이 바뀌어야 진짜 디지털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단순한 ESG의 틀로 보지 않는다. “기업과 사회,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상태가 지속가능성”이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핵심은 다양성과 상생이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립비토즈는 기술기업이지만 내부 경영 철학은 공존을 강조한다. 개발자, 디자이너, 콘텐츠 기획자가 한 공간에서 협업하며, 모든 의사결정은 ‘사용자의 감정 곡선’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 대표는 “ESG는 제도지만 지속가능성은 철학”이라며 “소비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는다. 기술도 사람의 신뢰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리더십의 본질을 ‘품격’으로 본다. “격변의 시대에 리더에게 필요한 건 사랑과 희생”이라며 “세상과 싸우기 전에 자신과 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류의 위대한 리더들은 비폭력과 관용으로 세상을 바꿨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관용이 제도화될 때 구성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다양성이 경쟁력이고 포용이 곧 혁신이다”고 말했다.

인터뷰의 말미에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상상력은 두 방향으로 향한다”며 “더 멀리, 우주로 혹은 더 깊이 자기 자신 안으로 향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트립비토즈는 이 두 축을 잇는 여행을 만들고 싶다”며 “AI가 여정을 설계하고 인간은 감정을 기록하며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의 영감이 되는 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행이 산업이 아닌 철학의 영역으로 확장될 때 기술은 단순한 수단을 넘어 인간의 기억을 정리하는 언어가 된다.

정대표에게 트립비토즈는 결국, 그 언어를 번역하는 회사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에 시작된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시간, 기술보다 인간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한 사람의 시선.

그가 말하는 여행은 데이터의 여정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뭉뚱돌리는 그의 손끝에서 기술은 조금씩 사람의 온도를 닮아가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트립비토즈는 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GITEX 글로벌 2025’에서 글로벌 여행 기술 플랫폼 기업 iOL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 체결했다. /트립비토즈



▲‘시즌 8승 도전’ 안세영, 야마구치에 설욕전… 덴마크오픈 결승 진출 /사진 뉴스시스

▲1년 만에 한국 대회 나선 이승택 “다음 시즌 PGA 목표는 시드 유지”

▲한국 꺾은 모로코, U-20 월드컵 결승서 아르헨티나 만난다

▲MLB 골드글러브 후보 발표…토론토 클레멘트, 3루·유틸리티 동시 수상 도전

▲CJ ENM, 워너브라더스와 손잡는다…K콘텐츠 공동 제작

▲애니메이션 영화 ‘광장’, 워 온 스크린 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